

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10. 16.(월) 11:30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우리 선박 안전관리 현황점검

- 무력충돌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현황점검 회의 개최 -
- 우리 국민과 선박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상황관리 당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6일(월)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력충돌 지역 인근 해역의 우리 선박과 국적 선원이 승선한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선사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이번 무력충돌로 인한 선박 피해와 해운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분쟁지역이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수에즈 운하 부근인 만큼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해수부와 관련 업계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문승록 (044-200-5851)